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하자…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도”

“기후위기, 새로운 성장 기회 만들어야…민주당 적극 노력”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엔 “국정 진지해야” 비판 “중요한 정책을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도 검토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16년 만에 11월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다 2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며 “호우와 태풍, 한파 등 기후 재난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겪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 수단으로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과 같은 과제들이 산적하다”며 “국회 기후위기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IRA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국세법을 도입했다”면서 “민주당은 기후 선진국에 걸맞지 않고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선 “시뻘맞고 당황한 것 아니냐”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지를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고, 아무리 추위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 모닥불을 때는 사람들은 없다”며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와 전 세계가 겪는 많은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 계획을 겨냥해서도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들을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 고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확장하면 제주 빼고 전부 서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결정

해야 하는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희면기자

민주 “국가안보실, 김건희 트위터 계정 관리 사과해야”

“김 여사 ‘셀럽 놀이’가 아닌 안보 위기 대응에 전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전남 고흥유자체험관을 방문해 유자를 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안보실이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 인증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귀령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김 여사의 ‘셀럽 놀이’가 아닌 안보 위기 대응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김 여사의 트위터 계정

에 ‘실버마크’를 달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직접 나서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트위터 계정에 실버마크를 달는 것이 국가안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국가안보실이 왜 대통령 부인의 트위터 계정 관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은 공사도 구분하지 못하고 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느냐”며 “김 여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돌이라는 세간의 평가처럼 대통령실도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헷갈리는 것이냐”라며 “가족에 불과하다고 한 김 여사를 ‘가족’으로 관리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원하는 이유를 밝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욱이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당시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논문 표절, 주가 조작 등 본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논란 앞에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김 여사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조용한 내조’를 실천하라”고 덧붙였다.

김수권기자

비명계 “역대 가장 불공정한 공천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거확단을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공천과 관련해 비명(비명계)계 의원들의 불만이 잇따라 표출되고 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8일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총선거확단이 첫 회의에서 제기된 ‘공천률(규정) 변경 가능성 등을 겨냥하며 “이번 민주당 공천은 역대 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총선거확단 첫 회의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현역 의원의 평가 하위 감산 확대’ 등을 포함한 내년 총선 공천 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권 20%에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당헌당규를 현역 의원 30%를 대상으로 최대 40% 감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비명계는 공천 료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한다. 총선 1년 전에 공천 료를 정하고 그 이후에는 손 안 댄다는 게 민주당의 불문율 아니 명문을 이었다”며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뒤통수를 만지려고 한다. 공정성, 질서가 실종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며 이른바 ‘개팔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집단적인 낙선 운동을 폄했다.

김 의원은 “지금 개팔들이 이 대표 비판하는 의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낙선하겠다고 사진 붙이고 다닌다. 그리고 지역구 가서 막 공격하고 팽과리 치고 플레가드 걸고 한다”며 “친명 유튜브들은 이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당선시키고 이 사람은 떨어뜨리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새는 마을 이장 선거도 이 정도로 불공정한 선거는 안 한다. 예를 들면 마을 이장 선거를 하는데 우리 마을 이장에서 이 사람이 우리 군수랑 가깝다. 그러니까 이 사람 찍어주고 이 사람은 군수하고 맨날 쓴소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방송을 하고 다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거를 지도부가 가만 놔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는 당직자들도 가담을 한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가담하는 사람은 공천을 배제하든가 아니면 당직에서 징계해야 한다”며 “마을 이장 선거도 민주적으로 하는데 제1당의 선거를, 내부 경선을 이런 식으로 한다? 국민들이 그 정당 찍어주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